

이씨 《적백하오관중탕》 가운데 적백하수오를 병용하는 역사에 관하여

양찰길*

이제마선생의 『동의수세보원』 제2권 새로 설정한 소음인 병에 쓰는 중요한 약 24가지 처방 가운데 《적백하오관중탕》은 사지가 권태하며 오줌이 잘 나가지 않으며 음경이 일어나지 않으며 장차 부종이 생길 징조가 있는 자에게 쓰는 대표적 처방이다. 그는 적백하수오를 위주로 하고 고방 《관중탕》에 또 향부자, 익지인을 가한 것으로써 조성된 처방이다. 이 처방의 독특한 점은 방제 본신의 이름에서 보다시피 적백하수오를 병용한 것이다.

그러나 적백하수오를 함께 쓰는 방법은 이제마선생이 처음으로 쓰는 것은 아니다. 일찍이 당나라 원희 7년 즉 공원 813년 이고가 쓴 『하수오록』에는 하수오의 독특한 공능을 생동하게 기록했으며 또 처음으로 하수오는 자웅 두가지가 있다고 했으며 또한 자웅을 같이 쓰는 원칙을 내놓았다. 책에 쓰기를 《청명시절에 자웅을 함께 캔다.》고 하였다.

송나라 초기 각 본초서적은 제각기 모두 하수오를 수록하였으며 적백하수오를 병용하는 원칙을 계승하여 발휘하였다. 『개보본초』에 쓰기를 《하수오에는 적백 두종이 있는데 붉은 것은 수컷이고, 흰 것은 암컷이다.》 《하수오는 봄과 여름에 그 뿌리를 캐어 암컷, 수컷을 함께 쓴다.》고 하였다.

명나라 때에 행림대가 이시진은 그의 『본초강목』(금릉관 즉 그가 생전에 찍은 판본이다.) 하수오 그림에다 암컷, 수컷을 뚜렷하게 그렸으며 하수오는 적, 백 두가지가 있다고 돌출하게 설명하였다. 이와 동시에 자기의 림상실천중에서도 적, 백 하수오를 병용하는 전통경험을 매우 중시하였다. 그는 《백하수오는 기분에 들며 적하수오는 혈분에 든다.》는 이론을 내놓았다. 『본초강목』에 수록된 하수오를 주약으로 하는 여러 처방에서 적, 백 하수오를 각기 절반씩 사용하는 처방배합원칙을 사용하였다. 예로 들면 『칠보미염단』에서는 《적, 백 하수오를 각기 한근씩 쓴다.》고 하였고 『수모환』에서는 《다만 적, 백하수오를 각기 반근씩 쓴다.》고 했다. 명나라의 리주재도 말하기를 《흰것은 기에 들어가며 붉은 것은 혈에 들어간다. 적, 백을 같이 쓰면 기혈을 서로 돕는다.》고 하였다. 청나라 때에 와서 주암의 한단락의 정채로운 논술이 있다. 《간과 신장을 보하려면 검정콩에 섞어 찌되 붉은 것과 흰것을 각기 절반씩하라. 이러한 방법을 반드시 말하여야 하겠다.》

이상과 같은 실례에서 적, 백 하수오를 병용하는 원칙은 일찍이 당나라 때부터 시작하여 임상에 쓰

* 연변민족의약 연구소

이었다. 이제마선생은 역대의 여러 사람들의 경험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자기의 독특한 처방 《적, 백하오관중탕》을 내놓았다. 그는 또 이 처방에 근거하여 여러가지 부동한 증상에 따라 일부 약들을 가감하여 여러가지 다른 처방을 만들어 내놓았다. 예로 들면 《이 처방에 후박, 지실, 목향, 대복피 각각 5푼을 가하면 또 기맥을 통하는 효력이 있으

나 비록 부종이 생긴 환자라 해도 마음과 생각을 안정하고 1일 2번씩 100일만 먹으면 낫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였으며 이 처방에 인삼으로 적하수오를 바꾸면 《인삼백하수오관중탕》이라고 부르며 당귀로 적하수오를 바꾸면 《당귀백하수오관중탕》이라고 부른다고 하였다.